

1911년 『신약전서』의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제사와 예배에 관한 문화사적 연구

소기천*

1. 서론

순수 우리말 성경인 『성경전서』는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권을 일제에게 강제로 빼앗기고 나라를 잃은 슬픔에 빠진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초엽에 『성경전서』는 실의에 빠진 한국민을 위로하기에 충분하였다.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된 직후에도 불구하고, 『성경전서』가 순수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 점에서 본 소고는 『성경전서』의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제사와 예배에 관해 연구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말 번역 성경의 의의와 문화사적 특징을 각각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히 초기 한국교회와 한국역사에 문화사적으로 끼친 영향력과 유산을 『신약전서』에 나타난 용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 『신약전서』가 당시에 통용되던 순수 우리말 어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문화사적 관점에서 밝히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본 소고는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제사와 예배의 한국 문화사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894년의 청일전쟁과 1904년의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급기야 1905년에 을사늑약을 통하여 한국을 강제로 침탈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이후에, 구한말의 “의지할 곳 없는 민심”²⁾은 풍전등화와 같은 각종 흉흉한 풍문들에 시달리는 와중에서도 초기 한국교회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회개기도운동³⁾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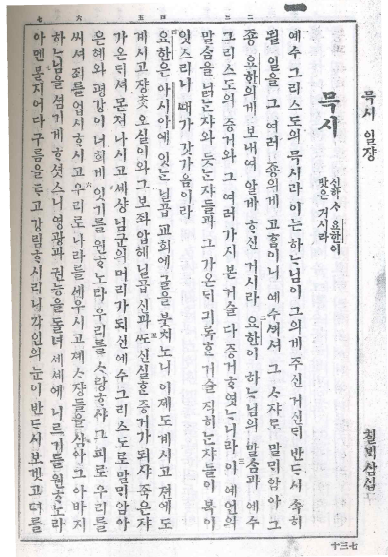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신약신학.

- 1) 우리말 성경을 번역사의 측면에서 다룬 연구는 김양신, 김윤경, 박창환, 김혜곤, 이원순, 김중은 등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고, 성경의 문체적인 특징을 다룬 연구는 김영덕과 표성수의 연구가 있으며, 서지학적으로 고찰한 것은 김봉희와 이용호의 연구가 있으며, 국어학적 고찰을 한 것은 유창균, 나채은, 송민, 최대영, 정길남, 서정수의 연구가 있으며, 번역상의 문법적 신학적 특징을 연구한 것은 『성경원문연구』의 연구들이 다수 있다. 참고, 정길남, 『개화기 국역성서의 표기법과 문법형태』 (서울: 개문사, 1987), 9-10.
- 2) 임희국, “신앙각성운동을 통한 갱신과 부흥, 토착교회의 형성: 1907년 평양 대각성운동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과 리더십: 제1, 2회 소망신학포럼』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편집위원회, 2006), 447.
- 3) 김인수, “미국 대각성 교회 운동과 한국교회 1907년 대부흥 운동과의 비교연구”, 『20세기 개신교 신앙부흥과 평양 대각성운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6), 63.

1907년에 일어난 평양사경회⁴⁾를 가져왔다. 당시의 성도들은 사경회를 통하여 종말론적으로 압박한 심판사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음의 요한계시록 1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신약전서』에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묵시문학으로 이해한 측면이 강하다.

특이한 것은 『신약전서』가 요한계시록을 ‘묵시’라고 밝히면서 아주 간단하나마 저자를 소개하고 있는 점이다. 곧 요한계시록을 ‘묵시’라고 제목을 붙이면서, “신학스 요한이 밝은 거시라”고 소개하고 있다.⁵⁾ 이러한 종말론적 이해는 각종 개인적인 죄목들을 공개적으로 ‘통회 자복’⁶⁾하는 일을 초기 한국교회에 촉발시켰다. 당시의 초기 한국교회는

“살인과 간음”뿐만 아니라, “방화, 술주정, 도둑질, 강도, 거짓말” 등과 더불어 “시기, 질투, 멸시, 미움” 등 온갖 죄악들을 낱낱이 회개하였다.⁷⁾ 당시에 공개적으로 고백한 죄의 목록들에는 “사기, 교만, 세상욕, 음란, 탐심, 미움, 질투” 등이 있었고,⁸⁾ “조혼, 교육, 부정, 주초문제”⁹⁾ 등도 있었다. 그런데 당시의 사경회는



4) 1907년 평양사경회에 관하여 흔히 대부흥운동, 영적대각성운동, 혹은 대부흥사경회라고 거창한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이는 모두 후대 학자들의 주관적인 관점이 반영된 표현이다. 그 당시에는 단순히 사경회라고 불렀다. 당시 선교사들은 영어로 bible conference, bible study class, 혹은 이를 줄여서 bible class라고 불렀다. 현재 100세로 최고령 목사인 방지일은 “전에는 사경회라 하여 성경공부가 주가 되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사경회라는 말은 없어지고 심령부흥회라는 말이 자리를 잡은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말씀공부는 없어지고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일만 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하였다(참고, 김혜숙, “편집후기”, 『새가정』 54:588 [2007년 4월호], 115).

5) 사실 『신약전서』는 신약 27권의 제목을 전하면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간단하게 각 책의 저자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저자에 관한 설명을 『신약전서』가 주고 있는 것은 아주 유용한 정보이다. 초기 한국교회 당시에 성경에 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성도들에게 이 같은 정보는 『신약전서』가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땅에 푹 떨어진 책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기록된 문서라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기존의 종교적 경전에 관한 차별화된 인식을 갖게 하였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무엇인가 특별한 이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이러한 정보는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하였다.

6) Charles F. Bernheisel, *The Rev. Charles F. Bernheisel's Missionary Diary*, 김인수 역, 『편하설 목사의 선교일기』 (서울: 쿰란출판사, 2004), 302.

7) W. M. Baird, “The Spirit among Pyeng Yang Students”, *Korea Mission Field* 3:5 (May 1907), 66.

8) W. L. Swallen, “God's Work of Grace in Pyeng Yang Class”, *Korea Mission Field* 3:5 (May 1907), 79.

9) J. Z. Moore, “The Great Revival Year”, *Korea Mission Field* 3:8 (August 1907), 116.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었다. 그런 점에서 1907년 대부흥 이후에 초기 한국교회는 모든 한국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절실했다. 이러한 요청에 발맞추어서 순수 우리말 성경이 번역된 것이다.

2. 순수 우리말 번역 성경

1911년에 당시의 대영성서공회(오늘날 대한성서공회의 전신)가 한국에서 최초로 성경번역 위원회를 조직하여 번역한 순수 우리말 성경인 『성경전서』는 『신약전서』 1권과 『구약전서』 3권으로 발행된 것이다. 1911년에 발간된 『성경전서』는 철저하게 한자를 배격하고 순수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여 출판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문화사적으로 가치가 높다.

다음과 같이 목차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신약전서』는 신약성경 각 책에 해당하는 숫자인 각 장을 한자로 표시하는 최소한의 방식 외에는 페이지 번호까지 순수 우리말로 표기를 하였다.

신약 전서		구약 전서	
에베소 六章	요한복음 三章	창세기 一章	창세기 二章
갈라디아서 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三章	창세기 四章
고린도 후 一三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四章	창세기 五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五章	창세기 六章
고린도 전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六章	창세기 七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七章	창세기 八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八章	창세기 九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九章	창세기 一〇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一〇章	창세기 一一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一一章	창세기 一二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一二章	창세기 一三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一三章	창세기 一四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一四章	창세기 一五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一五章	창세기 一六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一六章	창세기 一七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一七章	창세기 一八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一八章	창세기 一九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一九章	창세기 二〇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二〇章	창세기 二一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二一章	창세기 二二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二二章	창세기 二三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二三章	창세기 二四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二四章	창세기 二五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二五章	창세기 二六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二六章	창세기 二七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二七章	창세기 二八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二八章	창세기 二九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二九章	창세기 三〇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三〇章	창세기 三一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三一章	창세기 三二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三二章	창세기 三三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三三章	창세기 三四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三四章	창세기 三五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三五章	창세기 三六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三六章	창세기 三七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三七章	창세기 三八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三八章	창세기 三九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三九章	창세기 四〇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四〇章	창세기 四一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四一章	창세기 四二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四二章	창세기 四三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四三章	창세기 四四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四四章	창세기 四五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四五章	창세기 四六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四六章	창세기 四七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四七章	창세기 四八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四八章	창세기 四九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四九章	창세기 五〇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五〇章	창세기 五一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五一章	창세기 五二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五二章	창세기 五三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五三章	창세기 五四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五四章	창세기 五五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五五章	창세기 五六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五六章	창세기 五七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五七章	창세기 五八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五八章	창세기 五九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五九章	창세기 六〇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六〇章	창세기 六一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六一章	창세기 六二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六二章	창세기 六三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六三章	창세기 六四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六四章	창세기 六五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六五章	창세기 六六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六六章	창세기 六七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六七章	창세기 六八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六八章	창세기 六九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六九章	창세기 七〇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七〇章	창세기 七一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七一章	창세기 七二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七二章	창세기 七三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七三章	창세기 七四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七四章	창세기 七五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七五章	창세기 七六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七六章	창세기 七七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七七章	창세기 七八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七八章	창세기 七九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七九章	창세기 八〇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八〇章	창세기 八一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八一章	창세기 八二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八二章	창세기 八三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八三章	창세기 八四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八四章	창세기 八五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八五章	창세기 八六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八六章	창세기 八七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八七章	창세기 八八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八八章	창세기 八九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八九章	창세기 九〇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九〇章	창세기 九一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九一章	창세기 九二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九二章	창세기 九三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九三章	창세기 九四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九四章	창세기 九五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九五章	창세기 九六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九六章	창세기 九七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九七章	창세기 九八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九八章	창세기 九九章
로마 一六章	요한복음 二二章	창세기 九九章	창세기 一〇〇章

이런 순수 우리말 표기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각 서신의 제목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지명과 인명으로만 표기를 하였을 뿐이지 다른 어떤 단어도 삽입하거나 추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표기는 『신약전서』가 순수 한글만을 최대한 살리려 하였다는 특징을 드러낸다. 1911년에 발간된 『성경전서』는 성경 인물의 고유명사를 음역하여 표기하는 데 있어서 단일화하고 통일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¹⁰⁾ 모든 인물을 한글로 표기하려 한 점은 『신약전서』가 고수하고 있는 한글 표기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대 전환을 이룬 것과 같은 것이다.

역사적으로 1910년에 일제는 강제로 대한민국의 국권을 침탈한 비운의 역사에 관해서 나채운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린다.

우리나라는 1910년까지는 엄연한 독립국(대한제국)으로서 국권을 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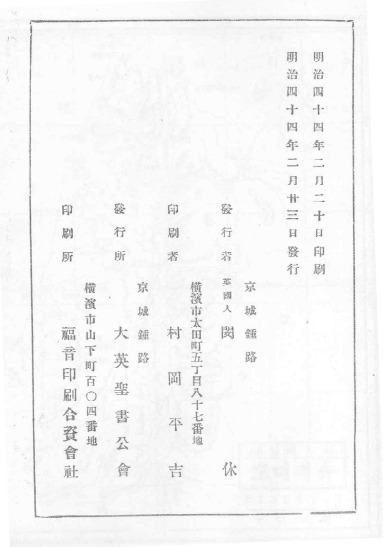
10) 김중은, “구약성서국역사”, 『신학사상』 22 (1978), 459-460.

있었으나 1910년에 일제에 의해 합방[침탈]이 된 후로는 자주국으로서의 국권을 상실하고 일본 총독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일개 식민지로서 “조선”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다.¹¹⁾

한반도를 “朝鮮”이라 부름과 대응해서 일본 본토를 “內地”라 부르고 “內鮮一體”라는 구호 아래 우리 민족과 국가를 영영 말살하려 하였다. 일제말의 우리말 노래 가운데는 동경을 “서울”이라고 부른 것도 있다(우리의 서울은 일찍부터 “경성”으로 불리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는 1939년까지는 “국어”로서 일본어와 “조선어”로서의 우리말을 함께 가르쳤으나 1940년부터는 우리말 말살정책을 써서 우리말을 전연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만을 국어로 가르쳤다.¹²⁾

이러한 뼈아픈 역사 속에서 대영성서공회가 1911년에 『성경전서』를 완전하게 우리말로 번역하여 출판함으로써,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식민지의 교두보로 만들어 자기 나라에 강제적이고도 동시에 일방적으로 침탈하려는 일본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성경전서』가 순수 우리말로 번역되었으니, 이는 한글을 말살하려는 일본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유산을 『성경전서』가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성경전서』의 서지정보가 완전히 한자로 기록된 것과 서울을 경성으로 표기한 것과 년도를 일본식으로 명치 44년으로 표기한 것은 1910년 이후에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에 얼마나 국권이 침탈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례이다.

이러한 서지정보에 의하면, 『성경전서』가 출판되던 1911년에도 한자 문화권이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한자가 득세하던 와중에 국권이 일제에 의해 침탈되기까지 이르렀으니, 우리말의 위상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야말로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11) 나채운, 『국역성서 개역본에 있어서의 한자 사용에 대한 연구: 중일여역과의 대조고찰과 더불어』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발행년불명), 6.

12) Ibid., 각주 4.

1795년으로부터 1800년까지 이가환과 정약용 같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말로 4복음서를 번역하였고 1832년에 쾰즈라프가 주기도문을 우리말로 번역하였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하였다. 그 이유는 쇄국정책으로 이방문물을 거부하던 풍조에서 기독교의 문서를 인정하지 않던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이다.¹³⁾ 1876년에 만주 우장에서 선교하던 로스와 매킨타이어가 고려문에 온 한학자들인 이응찬,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등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본격적으로 한문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드디어 1882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인쇄되었고, 1883년에 사도행전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출판되었고, 1887년에 신약성경 전체가 『예수성교전서』라는 이름으로 3,000부 발간되었다.¹⁴⁾ 이 무렵에 일본에서 이수정은 1883년에 성경번역 작업을 시작하여 1884년에 4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번역을 마치고 요코하마에서 마가복음을 1,000부 인쇄하였다.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동경에서 이수정에게 우리말을 두 달 정도 배우고 우리말 쪽복음인 마가복음을 가지고 한국 땅을 밟았다.¹⁵⁾ 이미 19세기 말에 중국에서 번역된 로스역인 『예수성교전서』와 이수정의 마가복음이 출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땅에서 번역된 성경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형국이었다. 특히 로스역은 “평안도 사투리로 짝 차 있어서 서울 이남에서는 도저히 읽어낼 도리가 없는 것이었다.”¹⁶⁾ 이런 이유로 로스역은 서울까지 전해졌어도 서북출신의 기독교 신자들이나 관심을 갖는 문서에 지나지 않았다.

3. 『신약전서』의 문화사적 특징

1911년 『성경전서』가 당시에 대중이 가급적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순수 우리말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으니, 이것은 언어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성경전서』는 당시 한국인이 사용하던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문화적으로 가깝게 다가서는 효과를 자아냈는데, 이에 관하여 박창환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908년에 처음으로 한국인이 성서번역위원으로 임명되었는데, 그 이름은

13) 박창환, “한글성서 번역사”, 『교회와 신학』 4 (1971), 150.

14) Ibid.

15) Ibid., 153-154.

16) Ibid., 155, 서북방언의 특징에 관하여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84), 134-136을 보라.

김정삼, 김명준, 이창직 3인이었다. 1910년 4월 2일 오후 2시에 구역전서 번역이 끝났고 1911년에 구약전서가 출판되고 동시에 신약전서와 합쳐진 성경전서가 간행되었다. 1910년에 국가적으로 일본과 합병[침탈]이 되면서 슬픔과 분노의 도가니에 빠진 해이지만 신령한 면에서는 신구약성서가 우리말로 완전히 번역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새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¹⁷⁾

당시 일제에 국권이 강제로 침탈된 상황에서 『성경전서』가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순수 우리말의 아름다운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특히 『성경전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국역성경의 농경문화, 결혼문화, 장례문화, 한문문화, 군사문화, 생활문화 등의 초기 한국교회의 삶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던 당시의 한국인들에게 정서적으로 공감이가는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쇠국정책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가깝게 대할 수 있는 문화적 산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신약전서』가 그 당시에 한국인들이 일상용어로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음부(롬 7:3) 창기(고전 6:16) 계집(요 8:2, 4-5, 9) 계집 으희(막 5:42; 눅 8:51; 행 12:13, 15) 계집 종(눅 1:38, 48; 눅 22:56; 갈 4:23, 30-31) 관속(요 7:45-46; 18:3, 18, 22; 행 5:22) 스장이(행 16:23-24, 27, 29, 33, 36) 빅 사 름(행 27:29) 섬 야인들(행 28:4) 재판소(행 19:38) 공갈(행 4:19, 21) 목구멍(롬 3:13) 외입(눅 15:30) 광패(막 7:22) 불한당(눅 10:30)

이러한 표현들 중에는 때로 저속하다고 멀리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신약전서』가 개의치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 생활상의 저변을 파고들어서 성경에 관한 편견을 없애주고 쉽게 공감대를 형성시켜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표현들도 『신약전서』가 친서민적인 정서에 얼마나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이다.

소(눅 14:4; 딤편 5:18; 히 9:13; 10:4; 계 18:13) 도야지(마 9:30, 32-33; 막 5:11-13, 16; 눅 8:32-33) 라귀(마 21:1, 3; 막 11:7; 눅 14:4) 라구 삭기(마 21:1, 3) 비둬이(막 11:15; 요 2:16) 독슈리(눅 17:36) 즈칭(행 11:6) 버리지(행 11:6) 새(마 6:26) 춤새(눅 12:7) 가마귀(눅 12:24) 양¹⁸⁾

17) Ibid., 157.

춤 과부(딤펢전 5:3, 5, 16) 동모(마 11:16; 24:49; 눅 5:7; 요 11:16; 행 7:27; 고전 15:33; 계 6:11) 우리 친구(요 11:11) 동학혼 사람(행 13:1)

동싱들(마 12:46-49; 막 3:31-35; 14:12; 15:32) 누의(마 12:50; 막 3:35) 누의들(요 11:3) 아오들(행 1:14) 오라비(요 11:2, 19, 21, 23, 32) 형테나 즈미(막 10:29) 말제 아들(눅 15:12-13) 맛 아들(눅 15:25) 아들(눅 15:21, 23, 30-31)

미시말(마 27:45-46; 막 15:34) 밤 스경(막 6:46) 스시초(행 2:15) 신시초(행 3:1)

절일(마 27:62) 칠일 첫날(눅 24:1) 날헤 중 첫날(요 20:1, 19)

소반(마 14:8, 10-11; 23:25-26; 막 6:25, 28-29; 눅 11:39) 광쥬리(마 15:37; 16:10; 막 8:8, 20; 행 9:25; 고후 11:33) 칼 날(눅 21:24) 칼(마 26:47; 요 18: 11)¹⁹⁾ 환도(마 26:46, 51-52; 눅 22:36, 38, 52; 요 18:10) 몽치(마 26:46; 눅 22:52) 전딤(눅 22:35-36) 쥬머니(눅 22:35-36)

술(마 11:19; 요 3:10; 딤펢전 3:3) 포도쥬(눅 1:14; 요 2:3, 9; 4:46; 딤펢전 5:23) 포도즙(눅 22:18) 쇼쥬(눅 1:14) 잔(눅 22:20; 고전 10:16 여기서 잔은 포도주를 상징한다; 눅 22:41 여기서 잔은 고난을 상징한다)

닷량중 두량중 흘량중(마 25:15-30) 은돈 열렸(눅 15:8) 은 열근(눅 19:13) 은 닷근(눅 19:18) 은 흘근(눅 19:16, 18) 은홍소(눅 19:23) 돈 흘푼(눅 20:24)²⁰⁾

이러한 표현들은 초기 한국교회가 몸담고 있던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초엽에 아주 일반적인 한국인의 언어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당시의 한국 문화상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증거들이다. 이러한 『신약전서』의 문학적 특징에 관하여 나채운은 “그 문장의 유려한 품이 당시 국문학사상에서 그 비견을 찾기 어려운 걸작”²¹⁾이라고 평가한다. 『신약전서』는 기독교라는 특수

18) 양이란 동물이 『성경전서』에 다른 어떤 동물보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히브리서에 3회 요한계시록에 33회나 등장한다.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란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19) 칼이란 단어는 『성경전서』에 총 404회나 등장할 정도로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다.

20) 이러한 친서민적인 표현들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필자의 줄고인 “1911년 『성경전서』의 한국 문화사적 가치에 관한 연구”, 『Canon & Culture』 4:1 (2010년 봄), 127-157을 참고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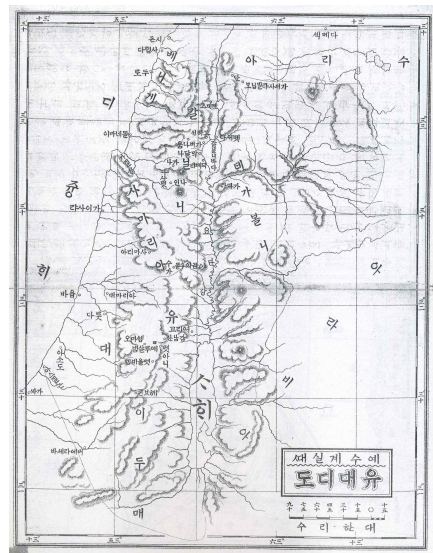
21) 나채운, “국역성서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성서 국역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교회와 신학』 4

집단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표현하는 기독교적인 세계상을 비기독교적인 문화와 토양을 가지고 있던 한국사회에 소개하기 위하여 가장 염두에 두었던 문제가 친서민적인 소통이라는 사실이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아무리 수려한 문장이라도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신약전서』는 바로 이러한 소통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초기 한국교회에서 기독교에 관해 아무런 지식도 없는 한국사회에 거부감 없이 기독교의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나채운은 이러한 친서민적인 표현에 덧붙여서 『신약전서』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던 특수한 의미를 전해줌으로써 더 광범위한 사회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의미를 제공해 주는 결과까지 낳았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그가 지적하는 것이 ‘세례’라는 용어이다.

<세례>라는 말은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에서(성서에서 처음 쓰여짐으로써) 처음으로 쓴 말이다. 즉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선 세례 행위(의식)가 없었고 따라서 그 말이 또한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1887년 성서를 처음 순한글로 번역한 John Ross는 <세례>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아마 영어(Baptism)에서 따서(희랍어 βαπτίζω도 같다) <밥뽀레>라고 했던 것 같다.²²⁾

세례라는 용어가 한국사회에서 그 이전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다가 성경이 번역되면서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는 당시에 문화사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용어인 세례라는 단어가 사람들 가운데 퍼져나가면서 오늘날은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용어로 탈바꿈되어 비신자들 사이에서 물세례, 오물세례, 계란세례, 소금세례, 옥 세례, 독설세례, 키스세례, 돌 세례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표현들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기독교적 언어가 비기독교 세계에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1971), 190.

22) Ibid., 205.

마찬가지로, 『신약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계실재 유대디도”는 단순히 성경의 세계상이 특정 종교의 경전에만 머물러 있는 문자에 고착된 종교상이 아니라, 세계 역사와 문화에 그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는 구체적인 역사와 지리에 근거한 세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신약전서』가 이 지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중해 인근의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베니게 지방을 근거로 광범위하게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한 눈에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예수계실재 유대디도”라는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신약전서』는 예수의 생애가 지리적으로는 지중해 인근을, 문화적으로는 유대문화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한편의 지도를 제작함으로써 『신약전서』는 예수께서 직접 사셨던 인근의 사해와 갈릴리 호수뿐만 아니라 유대 산지와 광야 그리고 수많은 시냇가도 세밀하게 보여주면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의 삶을 구체적인 지명을 따라가면서 공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예수의 모습이 단지 추상적이고 문자에 갇힌 언어의 나열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일구어낸 문화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초기 한국교회에게도 문화적 충격과 도전을 주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신약성경에 나타난 예수를 문화사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 『신약전서』의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들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다음의 항목에서 그 중에 하나인 제사와 예배에 관하여 문화사적 측면에서 연관을 지어서 이해하고자 한다.

4.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제사와 예배

이제 제사와 예배에 관련하여 문화사적으로 그 시대의 어휘나 표현이 사용된 예들을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찾아보려고 한다. 특히 제사라는 단어는 당시 한국인들이 익숙하게 경험하고 있었던 조상제사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미 『신약전서』의 전체 구절에서 ‘조상’이란 단어는 무려 69회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단어이다.²³⁾ 유교적 문화 속에서 조상숭배를 미덕으로 삼았던 조선 말기의 전통을 잘 알고 있던 초기 한국교회는 『신약전서』에서 ‘조상’이란 단어를 가감 없이 그대로 사용해 줌으로써 성경을 한국인의 정서에 문화적으로 가깝게 다가서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신약전서』에서 ‘제스장’ 혹은 ‘대제스장’이란 단어가 178회나 나온다. 또한 ‘제사’라는 단어

23) 히브리서에 ‘조상’이란 단어가 3회나 언급된다(히 1:1; 7:4, 10).

도 32회나 나올 정도로 빈번하고 그 중에 히브리서에 20회나 등장하는데,²⁴⁾ 비록 제사를 수행하고 모든 일을 주관하는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의 기능이 당시 한국인들이 갖고 있던 이해와는 다를지라도, 이미 제사를 총괄하는 제주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하고 있던 한국인들에게는 성경이 제시하는 이러한 단어들이 결코 낯설지 않은 것이었다.

초기 한국교회에 만연되었던 문화 가운데 하나가 조상제사였다. 유교 문화권 속에서 예를 중시하고 조상 숭배를 당연시하였던 당시에 『신약전서』는 이런 문제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우선 용어부터 한국인들이 낯설지 않게 번역을 해주었다. 『신약전서』에 사용되었던 제사용어는 다음과 같이 초기 한국교회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단어들로 당시 한국인들에게 소개되었다.

진설흔씩(막 12:4; 막 2:26; 눅 6:4; 히 9:2) 보양(엡 5:39) 교의(막 11:15)
멸망 식힐 뛰어난 물건(막 13:14) 일월성신(눅 21:25) 연보(고전 16:2; 고후 8:3, 10; 9:1, 5, 11-14) 연보케(막 12:43; 눅 21:1에서 연보케에 던진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향숙(막 16:1; 눅 23:56; 24:1; 요 19:40 향품이라는 뜻이다) 향단(눅 1:11) 레(갈 2:9) 절기와 월삭(골 2:16) 제스장(히 7:1; 계 1:6) 제단(히 7:12; 13:10) 레물(히 8:3) 제물(히 13:10; 계 2:14, 20) 제스(히 10:3) 전테(히 10:8) 번제흙(히 10:8) 속죄하는 제스(히 10:8, 18) 우상(계 2:14, 20)

이러한 용어들은 조상제사에 익숙한 한국인들이 이해하기가 용이한 용어들이었다. 이러한 단어들과 병행하여 『신약전서』에 61회에 걸쳐서 사용된 단어가 ‘섬기다’라는 단어이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섬기다’라는 단어가 14회나 된다(히 1:14; 6:10; 8:2; 8:5; 9:1, 6, 9, 14, 21; 10:2, 11; 13:10; 계 7:15; 22:3).

특히 히브리서 1:14에서 ‘섬기다’라는 단어가 다음과 같이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만연되었던 천사숭배와 연결되고 있다. 유대교에는 오래 전부터 천사숭배 사상이 있었다. 당시 그리스도교 안에도 초지상적 존재인 ‘턴스’들이 예수께서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과 구원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짓 가르침이 흥행하고 있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공동체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안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 죽음을 당하신 예수께서 어떻게 ‘턴스’보다 우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해야 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턴스’가 누구이며, ‘턴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

24) 마 9:13; 12:7; 눅 2:24; 행 7:41; 14:13, 18; 21:26; 롬 11:16; 12:1; 고전 10:20(2회); 히 5:1; 7:11, 12, 24, 27; 8:3; 9:9, 26; 10:1, 3, 5, 8, 11(2회), 12, 18, 26; 11:4; 13:15, 16; 뵤전 2:5.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 단연 제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 20회나 등장할 정도로 다수를 차지한다.

을 하고 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턴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입으로 얻으셨는데 바로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다. ‘턴스’는 조력자로서 존재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턴스’들에게 경배를 받으실 만한 존재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04편을 인용하며 조력자인 ‘턴스’들을 ‘바람’과 ‘불꽃’이라 표현한다. 이는 피조물로서의 ‘턴스’의 한계와 일시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시편 45편을 인용하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곧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보좌가 세세에 잇도다’라는 1:8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 언약이 성취되며, 예수께서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심을 나타낸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한 발 더 앞서 나간다. 예수께서 바로 창조주이심을 말하고 있다. 시편 102편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창조로 창조의 일부분이 아닌 피조물 위에 존재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연대가 다함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반면에 ‘턴스’들은 ‘부리는 신’으로 하나님뿐 아니라 구원받을 상속자인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존재라고 말한다.²⁵⁾ 다시 말해서, ‘부리는 신’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턴스’를 인간에게 보내셔서 섬기도록 하기 위해 보내신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4는 “구원 엿을 후스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반문하고 있다.

여기서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섬김과 관련하여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헬라어에서 *leitourgía*는 일차적으로 섬김을 뜻하는데, 이와는 달리 한국교회는 *leitourgía*의 의미를 전적으로 예배의 영역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이 같은 이해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leitourgía*를 예전적 의미로 제한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이 용어가 왜곡되어 예배를 제의적인 참여에 목적을 두고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상호 교통이 차단되고 일방적인 예전적 형태가 주를 이루는 데는 이 같은 용어의 잘못된 사용에 큰 원인이 있다.²⁶⁾ 본 소고는 이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약전서』에서 *leitourgía*가 6회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주시하면서, 그 의미가 일차적으로 섬김이란 뜻으로 이해되고 있는 점을 알게 되었다. 우리말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번역으로 나타나 있다: 눅 1:23(직분), 고후 9:12(보조), 빌 2:17(드릴 것), 빌 2:30(섬기는 일), 히 8:6(아름다운 직분), 히 9:21(섬기는 일).²⁷⁾ 여기서

25) 소기천, 고원석, 이연길 공저, 『히브리서-인도자용』,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성경교재 19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9), 65-66 참고.

26) 김성규, “소기천 교수의 논문에 대한 논평”, 『한국개혁신학회 제27차 정기학술대회 심포지엄』 자료집 (2009년 11월 7일. 한국개혁신학회), 108.

27) 이상의 구절들에 관한 자세한 주석에 관하여 필자의 줄고인 “칼빈의 신약주석에 나타난 *leitourgía*에 관한 연구”, 『한국개혁신학』 27 (2010), 101-128을 보라.

λειτουργία는 단 한 차례도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예배’와 ‘예전’이란 단어로 번역되지 않았다. 초기 한국교회는 『신약전서』에서 ‘레이투르기아’와 ‘레이투르게오’를 일차적으로 섬김을 뜻하는 단어로 이해하였다는 사실이다. 『신약전서』에 의하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럼으로 레물을 제단에 드리라고 거기 잇슬새 네 형제가 너를 인호야 원망호는 거시 싱각 나거든 레물을 제단 압헤 두고 몬져 가서 형제와 화목호고 그 후에 와서 레물을 드리라”(마 5:23-24)는 말씀처럼, ‘레이투르기아’와 ‘레이투르게오’는 단지 섬김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삶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지에 관해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단어이다. 이러한 세상에서의 섬김이라는 의미와 관련하여 λειτουργία는 하나님의 일에 서로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곧 하나님의 일에 서로 섬기는 동역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통하여 단번에 이루신 구속사역을 계속적인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섬김의 모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동등한 마음가짐으로 섬기는 일에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헬라어 신약성서에서 일차적으로 예배와 예전을 뜻하는 말은 λατρεία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 신약성서에서 λατρεία는 총4회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다. 그 의미는 『신약전서』에서 외형적으로 λειτουργία와 아주 유사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는 판이하게 다르다. 요 16:2(섬긴다), 롬 9:4(레법), 롬 12:1(당연히 레법), 히 9:1(섬기는 레법). 이렇게 『신약전서』는 λατρεία라는 단어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곧 예배로 이해하였다.

요한계시록에도 예배에 관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그 용례들이 다양하다. 우선 요한계시록 전체에 예배와 관련된 언어가 스며들어 있다. ‘찬양하다’(αἰνέω)는 19:5에, ‘감사하다’(εὐχαριστέω)는 11:17에, ‘감사’(εὐχαριστία)는 5:12-13과 7:12에 등장한다. ‘노래하다’(ᾄδω)는 5:9, 14:3, 15:3에, 명사 ‘노래’(ὠδή)는 동일 구절에 등장한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의 신원을 바라며 ‘큰 소리로 불너’(κράζω, 6:10)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구속 받은 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큰 소리로 불너’(7:10)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영화롭게 하다’(δοξάζω)는 15:4와 18:7에 등장하고, ‘영광’(δόξα)은 빈번히 등장한다(4:9, 11; 4:12; 11:13; 14:7; 16:9; 19:7). 영광과 관련된 용어인 ‘존귀’(τιμῆ)는 4:9, 11절, 5:12-13, 그리고 7:12에 나타난다. 성도의 ‘기도’(προσευχή)는 5:8과 8:3-4에 나온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성도가 드린 기도라는 용어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지상의 성도의 예배를 가리키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용례로 쓰이는 단어인 ‘아멘’(ἀμήν)이 규칙적으로 나타난다(1:6, 7; 3:14; 5:14; 7:12; 19:4).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후에 등장하는 ‘할렐루야’(ἀλληλουϊά)는 『성경전서』에서 신구약 성서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나타나는데(1, 3, 4, 6절),²⁸⁾ 이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는 구약성서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배를 가리키는 동사인 ‘경배하다’(προσκυνέω)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24회나 등장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섬기다’(λατρεύω)로 번역된 예배란 의미도 7:15와 22:3에서 볼 수 있다.²⁹⁾ 이러한 언급과 관련하여, 요한계시록은 λατρεία를 예배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신약전서』에서도 λατρεία는 동사형인 라트류오와 더불어서 ‘섬김’ 혹은 ‘경배’로 번역되고 있지만(예를 들면, 마 4:10; 눅 1:74; 눅 4:8-참고 신 6:13; 요 4:20-24; 행 7:7-참고 출 3:12; 행 24:14; 행 27:23; 히 9:14; 계 7:15; 22:3), 이 구절들에서 라트류오는 예배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에 관해 김성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견지한다.

칠십인역에서 라트레이아의 동사형 라트류오는 거의 섬김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역시 고정된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외형적 예배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동시에 의미하는 용어로 나타난다. 명사 라트레이아는 칠십인역에서 9회 사용되는 데 동사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수 22:27; 대상 28:13; 마카베오 1서 1:43; 2:19, 22). 신약에서 라트류오는 21회 상용되는데, 예전적 의미를 잃고 믿음에 의한 마음의 예배를 강조하는 경우에 사용된다(참고 행 24:14).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트류오가 예전적 의미를 완전히 배제하고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예전적 의미가 지닌 폐해를 교정하고자 사용한 점이다. 실제로 히브리서는 라트류오를 6회 사용하는 중에 4회(8:5; 9:9; 10:2; 13:10)는 전형적인 구약의 성전 예배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2회(9:14; 12:28)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 바울 역시 라트레이아를 사용하는데 로마서 12:1에서 예배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러나 1:9에서는 복음 안에서 영적인 예배를 강조한다.³⁰⁾

이렇게 『신약전서』는 한국인들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일깨우

28) 요한계시록 11:16-18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교회의 대적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29) 송영목,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배”, 『한국개혁신학회 제24차 정기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8년 5월 24일), 서울 백석대학교 방배동 캠퍼스: 68-80 참고. 특히 할렐루야라는 표현은 1911년에 번역된 『성경전서』가 시편에서도 그 사용을 자제하였던 표현이다.

30) 참고, 김성규, “소기천 교수의 논문에 대한 논평”, 109.

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약전서』의 요한계시록 1:6에 의하면, “우리로 나라를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삼아 그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게 하소서”라는 구절이 있다. 이러한 번역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섬기는 일로 이해함으로써 예배가 지니고 있는 섬김의 차원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를 위한 섬김의 장소와 관련하여, 초기 한국교회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조상제사의 공간은 일반 가정집이었다. 그래서 조상을 숭배하는 일이 가정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이 당시에 아주 일반화된 현상이다. 이렇게 초기 한국교회의 조상제사의 장소가 가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다음과 같이 『신약전서』에 나오는 단어들은 이 같은 조상제사의 전통과 맞물려서, 초기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 일반 가정집을 택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집(마 7:26-27; 눅 6:48-49) 주초(눅 6:48) 성³¹⁾이나 집(마 12:25 단순히 성과 집으로 묘사) 성중에 거리와 골목(눅 14:21) 미석(눅 21:5) 장인(막 12:10; 눅 20:17; 고전 3:10 건축가란 의미이다) 장인들(행 4:11 건축가들이란 뜻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처음부터 예배당이나 교회건물을 생각하였다면, 초기 한국교회가 친서민적인 전도활동을 그처럼 효과적으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찬송가 가사에도 있다시피 “초막이나 빈들이나 그 어디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인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한 초기 한국교회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시절과 마찬가지로 가정교회라는 본래적인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전서』에는 가정교회를 넘어서는 다음과 같은 단어도 등장한다.

성소³²⁾ 장막³³⁾ 성년³⁴⁾

31) 성과 도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에 5회와 요한계시록에 성문과 성곽이란 단어를 포함하여 41회나 등장한다.
32) 성소라는 단어가 지성소라는 단어와 함께 『성경전서』에 190회 등장할 정도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히브리서에 10회나 등장한다.
33) 장막이라는 단어도 『성경전서』에 216회 등장할 정도로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히브리서에 13회와 요한계시록에 4회나 등장한다.
34) 성년이란 단어가 『성경전서』에 491회 등장할 정도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16회나 등장한다.

이러한 단어는 분명히 초기 한국교회가 가정교회를 넘어서 제도화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성던’(ναός)은 7:15와 11:1에 등장한다. 결국 복음전도를 통하여 초기 한국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정교회는 예배당을 짓고 교회건물을 건축하는 양상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5. 결론

『성경전서』는 나의 조부³⁵⁾가 사랑했고, 지금 나의 부모와 우리 7남매도 사랑하며 그 위대한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³⁶⁾ 『성경전서』가 초기 한국교회 당시 일제 치하에서 우리 글을 지키고³⁷⁾ 우리 민족의 혼을 불러일으키는 데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본 논문을 통하여 나는 『신약전서』의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제사와 예배에 관해 연구하기 위하여 『성경전서』가 문화사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1910년에 일제에 의한 합일병합이라는 강제적으로 국권을 침탈한 비극적인 역사의 소용돌이 직후에 발간된 『성경전서』는 우리말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

35) 자세한 것은 필자의 줄고인 “초기 한국교회의 권서인 소요한(蘇堯翰) 장로”, 『성경원문연구』 10 (2002년 2월), 110-123.

36) 나는 한국전쟁 이후의 베이비부머 세대이지만, 여전히 1911년에 발간된 『성경전서』에 익숙하다. 지금 한국교회는 각 교단의 총회가 결의를 한 대로 대부분 『개역개정』을 사용하는데, 여전히 『개역개정』의 많은 표현들이 『성경전서』의 위대한 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나는 또한 국한문 혼용 세대로 한글과 한자를 읽고 쓰는 데 별 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순수 우리말의 옛 체에 대해서도 그다지 낯설지 않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초기 한국교회 당시 대영성서 공회에서 20년 동안 권서인으로 재직하였던 나의 조부인 소요한이 유품으로 남긴 여러 가지 초기 한국교회의 소중한 문서들과 국한문 성경 여백에 뽀뽀하게 남긴 글들과 순수 지은 2권의 우리말 민담과 속담에 관한 책들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여 자세히 읽고 있다. 나의 조부는 한학자이었지만 초기 한국교회를 위해 장로로서 앞장을 섰기 때문에, 친서민적인 순수 우리말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경을 반포하였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교회를 세웠던 분이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초기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우리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였으며 우리글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알아볼 겸해서, 나의 조부가 남긴 글을 총정리해 보고자 한다. 나의 모친은 풍전등화와 같은 일제 치하의 소학교에서 우리글을 배울 기회를 전혀 갖지를 못했지만, 교회에서 우리말 『성경전서』를 읽으면서 스스로 한글을 깨우쳤다고 한다.

37) 김창락은 『성경전서』가 우리말 성경 가운데 번역투의 냄새를 가장 적게 풍긴다고 평가한다. 참고, 김창락 “『성경전서』의 번역 검토”, 『Canon & Culture』 4:1 (2010년 봄), 39-74. 이덕주는 『성경전서』가 복음의 토착화를 이루는 데 처음부터 큰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한다. 참고, 이덕주, “‘제1세대 성서’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토착화”, 『Canon & Culture』 4:1 (2010년 봄), 75-125.

나라, 문화사적으로 한자 문화권 속에 있던 당시의 한국인에게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킴으로써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까지 갖게 한 아주 자랑스러운 성경이다. 『신약전서』는 아주 친서민적인 용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기독교 경전에 관해 아무런 전이해도 가지고 있지 않던 당시의 초기 한국교회에도 쉽게 성경의 세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용이한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한국인이 쉽게 『성경전서』를 친숙하게 여길 수 있는 여건이 초기 한국 교회에 마련된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자랑스러운 일이다. 특히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유교적인 전통에서 조상제사를 중시하던 당시 초기 한국 교회가 큰 거부감 없이 성경의 제사제도와 예배가 지향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제사’라는 용어와 ‘섬기다’라는 단어는 많은 다른 여러 가지 제사 용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초기 한국교회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성경전서』는 가정교회에서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공공 장소로 예배의 장소를 옮겨가도록 도움을 주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투고 일자: 2010. 8. 24, 심사 일자: 2010. 10. 4, 게재 확정 일자: 2010. 10. 8)

<주요어>(Keywords)

1911년 『성경전서』, 문화사적 연구, 제사, 예배,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The Complete Bible in Korean(1911), Cultural Historical Studies, Worship, Rituals, Hebrews, Revelation.

<참고문헌>(References)

- 김성규, “소기천 교수의 논문에 대한 논평”, 『한국개혁신학회 제27차 정기학술대회 심포지엄』 자료집(2009년 11월 7일. 한국개혁신학회).
- 김인수, “미국 대각성 교회 운동과 한국교회 1907년 대부흥 운동과의 비교연구”, 『20세기 개신교 신앙부흥과 평양 대각성운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6.
- 김중은, “구약성서국역사”, 『신학사상』 22 (1978), 459-460.
- 김창락, “『성경전서』의 번역 검토”, 『Canon & Culture』 4:1 (2010년 봄), 39-74.
- 김혜숙, “편집후기”, 『새가정』 54:588 (2007년 4월호).
- 나채운, 『국역성서 개역본에 있어서의 한자 사용에 대한 연구: 중·일어역과의 대조고찰과 더불어』,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발행년불명.
- 나채운, “국역성서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성서 국역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교회와 신학』 4 (1971).
-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84.
- 박창환, “한글성서 번역사”, 『교회와 신학』 4 (1971).
- 소기천, “1911년 『성경전서』의 한국 문화사적 가치에 관한 연구”, 『Canon & Culture』 4:1 (2010년 봄), 127-157.
- 소기천, “갈바의 신약주석에 나타난 λειτουργία에 관한 연구”, 『한국개혁신학』 27(2010), 101-128.
- 소기천, “초기 한국교회의 권서인 소요한(蘇堯翰) 장로”, 『성경원문연구』 10 (2002년 2월), 110-123.
- 소기천, 고원석, 이연길(공저), 『히브리서-인도자용』 장로회신학대학교 신약성경교재 19,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9.
- 송영목,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배”, 『한국개혁신학회 제24차 정기학술심포지엄』 자료집(2008년 5월 24일), 서울 백석대학교 방배동 캠퍼스, 68-80.
- 이덕주, “제1세대 성서’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토착화”, 『Canon & Culture』 4:1 (2010년 봄), 75-125.
- 임희국, “신앙각성운동을 통한 갱신과 부흥, 토착교회의 형성: 1907년 평양 대각성운동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과 리더십: 제1, 2회 소망신학포럼』,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편집위원회, 2006.
- 정길남, 『개화기 국역성서의 표기법과 문법형태』, 서울: 개문사, 1987.
- Baird, W. M., “The Spirit among Pyeng Yang Students”, *Korea Mission Field* 3:5 (May 1907).
- Bernheisel, Charles F., *The Rev. Charles F. Bernheisel's Missionary Diary*, 『편

하설 목사의 선교일기』, 김인수 역, 서울: 쿤란출판사, 2004.

Moore, J. Z., “The Great Revival Year”, *Korea Mission Field* 3:8 (August 1907).

Swallen, W. L., “God’s Work of Grace in Pyeng Yang Class”, *Korea Mission Field* 3:5 (May 1907).

<Abstract>

A Cultural Historical Study of Worship and Rituals in Hebrews and Revelation of The Complete New Testament in Korean (1911)

Prof. Ky-Chun So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Complete New Testament in Korean published in 1911 was the first Scripture by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Korean Agency, which established a committee for Bible translation and had three volumes of the Old Testament and one volume of the New Testament translated into Korean. This paper focused on studying some cultural historical heritages of early Korean churches based on the New Testament, specifically through the books of Hebrews and Revelation. Despite the publication of Ross's translation, the Complete New Testament in Korean is highly recognized as a cultural and historical heritage because it was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of the Bible by the Korean Bible Society. This paper studied some agricultural heritages and cultures involving marriage, Chinese characters, military, and nature in order to study ancestral worship and rituals of Hebrews and Revelation in various ways in which early Korean churches experienced all over the life styles and many church members of them deeply sympathized due to they are speaking in Korean. This paper also studied records of early Korean churches helping to lead many Koreans accept the Complete New Testament in Korean without any negative feeling. Since then, Koreans live together as a race, and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Christianity in Korea in order to reach a biblical world view. Finally, this paper studied some areas contributed by the Complete New Testament in Korean to increasing the number of house churches because it was interested in uniquely Korean feelings, and was theologically expressed in ways that would be more closely perceived by the Korean people.